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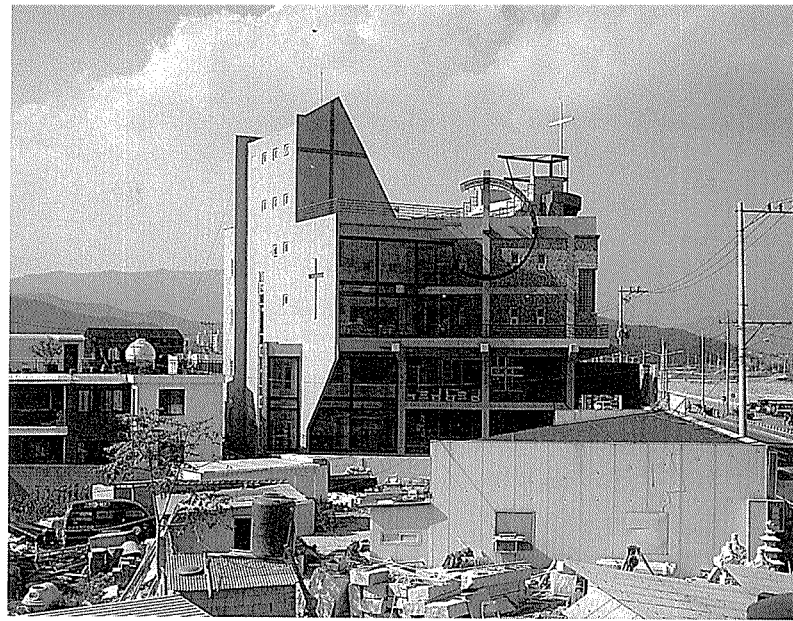
## 전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Toward a New Wholeness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교수  
by Kim Bong-Ryol

건축가 손명문을 경주에서 만난 지 10년에 가깝다. 서울에서의 수련기간을 거쳐 고향으로 내려와 계속하고 있는 그의 건축작업을 지켜보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하게 된다. 능력있는 건축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지방의 도시적 환경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있는 그의 저력과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한 기대이고 건축적 자극이 드문 상태에서 홀로 외롭게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두터워지는 독단과 나태에 대한 우려다. 이 글은 서라벌교회라는 한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이 건축가에게 보내는 격려와 조언이어도 좋다.

그동안 그는 많은 일을 했다. 경주시의 어느 거리는 '손명문 거리'라 해도 좋을 정도로 몇 집 건너 하나씩 그의 작품들이 서 있다. 그 건물들은 일정 정도의 완성도가 구현된 수준작들이고 그가 생각하는 경주 속의 건축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 도시의 도시건축적 환경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그도 만족하고 시민들도 호의적이다. 어찌보면 잘 나가는 지역 건축가로 흠 잡을데 없이 작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한 건축가의 작품세계란 정지하고 만족하는 순간 퇴행과 지루한 반복의 나락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구상을 실험하고 갈등을 헤쳐나가는 편안치 못한 삶이 건축가로서의 숙명인지도 모른다. 지방도시에서 한 사람의 창조적 건축가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예상 외로 지대하다. 이미 손명문의 아류작품들이 다른 건축가의 손을 빌어 경주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그 아류작들이 만드는 도시적 풍경은 썩 유쾌하지 않다. 치기어린 요소들의 돌출과 도시적 맥락과 맞지 않는 공간의 설정, 현란한 색채 등은 오히려 손명문의 영향을 받지 않은 평범한 건물들보다 더 도시환경을 어지럽게 만든다. 따라서 유행의 전파자로서 손명문은 일정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이런 부정적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는 이 도시의 낙후된 건축적 질을 향상시키려면 시민들의 미의식과 건축관을 바꾸어야한다고 생각했고 충격적인 형태와 예상치 못했던 공간과 표현적인 색채의 건축을 선보임으로써 시민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건축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전



서라벌교회

략을 택해왔다. 이 전략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인다. 그에 대한 시민적 지명도도 높아졌고, 지역적 평가는 물론 전국 건축계에서도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항상 건축주들의 기대와 요구 이상으로 결과물을 완성시킨 대가였다.

그러나 이 세속적 성공이 건축가로서의 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애초의 그의 목표 - 고향에 대한 애정과 건축발전에도 부응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의 건축세계의 성숙이나 완성파도 거리가 있다. 건축주들은 이른 바 튀는 건축만이 좋은 건축이라는 정도의 인식을 갖게 됐고 그에게 계속해서 표현적 작업만을 주문하는 것은 아닌가? 이 사회적 메카니즘 속에서 그 자신 역시 본질에 대한 치열한 추구하고 성숙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아닌가? 서라벌교회가 서 있는 동천변에는 몇백m 떨어진 곳에 손명문의 사무소 건물이 있다. 그만큼 그는 이 교회의 장소가 가지는 한계와 잠재력을 잘 알고 있다. 자연적 조건은 훌륭하지만 현재는 전혀 개발이 되지않고 방치되어 있는, 전원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모호한 이 땅이 어떤 장소로 바뀌어야할지도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 건너편의 황성공원을 원경으로 하고, 길과 강이 어우러져 걷고 싶고 사색하고 싶은 거리로 만들려는 것이다.

서라벌교회는 '교회같지 않은 교회'다. 적어도 지방도시에서는 아직도 '교회같은 교회'란 바실리카식 평면을 가지고 뾰족탑과 높은 십자가가 있는 교회일 것이다. 작가는 이 도시에 전혀 새로운 교회형태를 선보이려 했다. 동시에 방주나 면류관 등의 추상화를 통한 종교적 상징을 형상화시키고 싶었다. 그리고 몸체와 기능은 현대적이면서도 하늘을 향하는 전통적인 향천적 형태를 다시 재현하고 싶었을 것이다.

현재는 통과교통으로 위험한 강변로에 면한 전면 경계에 가벽을 설치하고 가벽 안으로 길을 끌어 들인다. 가로가 연장되어 교회안의 마당으로 자연스럽게 삽입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가벽의 높이가 너무 높아 전면 도로와는 완전히 격리되고 오로지 교회 내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2층 3층 계승 계단실을 통해 올라야 하고, 계단실에 면해 있는 옥외 테라스에 서면

드디어 도시의 펼쳐진 경관들을 대하게 된다. 이 교회의 내부적 순환체계에서 동선과 시선은 서로 단절적이다. 동선이 움직이면 시선이 사라지고, 시선이 살아나면 동선은 정지된다. 희망하는 도시적 환경은 단지 바라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역 사회 속의 교회' 라는 명제는 필연적으로 개방성과 접근성을 전제로 한다. 의식있는 교회들이 이러한 건축적 목표를 구현하려는 적지 않은 시도가 있었다. 문제는 항상 관리였다. 일반 주민들의 건전한 접근이나 이용보다는 소위 불량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점유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상적 목표와 현실적 장애 사이의 갈등은 흔히 현실 쪽으로 기울기 쉽다. 서라벌교회의 경우에도 접근성과 개방성은 계획 초기의 목표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실적 관리의 편의성에 치우쳤다. 작가는 교회라는 건축적 프로그램을 '주공간 대 봉사공간' 혹은 '성스러운 대 세속성'의 이원적 구조로 해석하고 있다. 주로 예배시설인 전자는 폐쇄적 구성을 통해 보호되고 로비 테라스 등 후자는 개방적 구조로 노출된다. 성소는 토석 벽돌의 딱딱한 재료로 막힌 벽면에 의해 보호되는 반면, 로비들은 드라이비트라는 비교적 연한 재료로 감싸진 구조 프레임들로 개방적인 공간과 형태를 형성한다. '폐쇄 대 개방', '유색채 대 무색채', '벽면 대 골조' 등의 대립적인 재료 - 구조 - 형태의 체계가 30도 각도로 틀어진 채 관통한다. 여기까지의 개념과 설정은 합리적이고 신선하다. 그러나 그가 의도한 관통된 이중 시스템은 몇가지 미숙함을 보이고 있다. 우선 두 체계 간의 구별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드라이비트로 이루어진 골조 프레임부분의 비례적 형태감에 대한 고려도 아쉽다. 특히 돌출된 캔틸레버 빔의 마구리들은 그 강한 노출성으로 인해 프레임 구성의 일부라는 본분을 잃어버렸다. 두 체계 간의 더욱 강한 대비와 정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체계적 모호함은 두 체계가 관통하면서 만들어지는 중간적 공간들의 성격을 모호하게 만든다. 두 상이한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맞닥뜨림으로써 중간적 영역의 성격이 없어지고 부조화되는 어색한 장면들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본당 입구 전실에 걸려있는 골조 프레임의 처리, 로비의 공간감을 손상시킴과 동시에 외부 도시경관을 방해한다. 로비공간을 제3의 시스템으로 인식했다더라면 다른 해결방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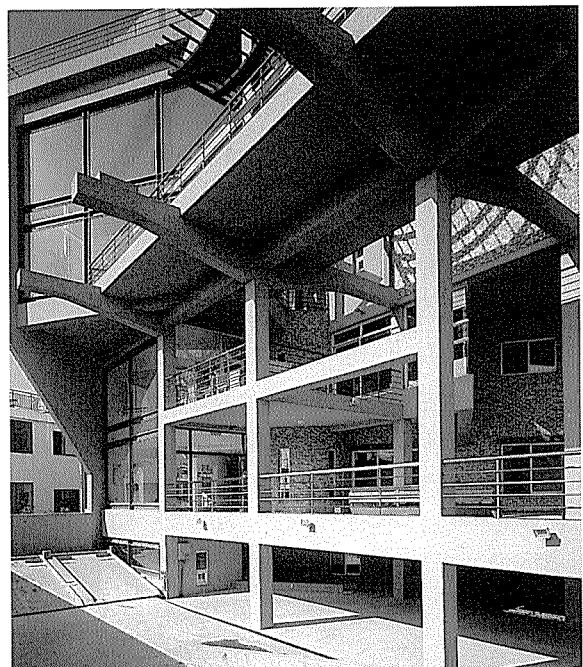
건축가 손명문이 설정한 이 교회의 건축적 목표는 모두 정당하고 귀중한 것들이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흔적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하 교육시설과 주차장에 빛을 도입하여 효용성을 높인 부분, 안미당의 도시적 분위기, 안톤 프레독을 연상시키는 본당의 빛처리와 옥상의 계단식 예배공간의 설정 등 그리고 세속성과 종교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설정된 철제 상징물들 하나 하나는 가치있고 성공적인 부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적인 애매함이 남는다. 이는 의도된 모호함이 아니라 부분들의 지나친 표현성으로 야기된 부조화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서라벌교회는 같은 건축가가 근자에 발표한 '감포의 집'이나 '현곡면사무소'

등과 일련의 시리즈라 할 수 있다. 물론 세 건물 모두 기능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축적 설정은 상이하다. 그러나 경관의 구조나 선택된 재료와 디테일, 상징적 형태들 사이에는 깊은 연관이 있다. 부분들의 형태와 빈도수는 세 건물 모두 비슷하지만 전체적 구성과 완성도는 서로 다르다. 감포의 집은 놀이와 위락을 위한 상업시설이다. 이 집의 자연환경과 기능적 프로그램은 다분히 축제적이고 낭만적인 건축을 원했고 비교적 성공했다. 현곡면사무소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고 봉사시설이다. 접근성과 개방성은 서라벌교회와 유사하고 파격적인 구성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 면사무소 단위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건축으로는 새로운 형식을 제안했다고 보아도 좋다. 그러나 서라벌교회는 다르다. 우선 교회라는 종교적 프로그램이 다르고 도심이라는 위치가 다르다. 무엇보다도 시간적 후발성 때문에 더욱 높아진 기대치를 이미 두 집에서 사용했던 부분들을 반복함으로써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다르다. 부분들의 지나친 외침은 소음으로 들릴 수 있다. 진정으로 경주라는 도시의 문화적 발전을 위한다면 여러 세트의 차임벨을 동시에 울리는 것보다는 단음조의 육중한 종소리가 필요할 것이다. 마치 에밀레종과 같이. 경주박물관에 있는 에밀레 종의 몸통에 다음과 같은 명문이 새겨져 있다.

“그 모습은 산처럼 우뚝하고 그 소리는 용의 울조림 같아 위로는 지상의 끝까지 퍼지고 아래로는 땅속까지 스며든다. 보는 이는 신기함을 느낄 것이요 소리를 듣는 이는 복을 받으리라.”

지난 기간동안 경주와 건축을 향해 쏟아왔던 애정과 탐구의 방법을 일대 전환할 때라 보인다. 현란한 부분들의 표현보다는 절제된 표현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성을 구현할 때가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개념적인 건축, 현실적 유혹을 극복하고 초기의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과정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노력을 통해 이제 '경주' 혹은 '지역'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건축가 손명문으로서 자리매김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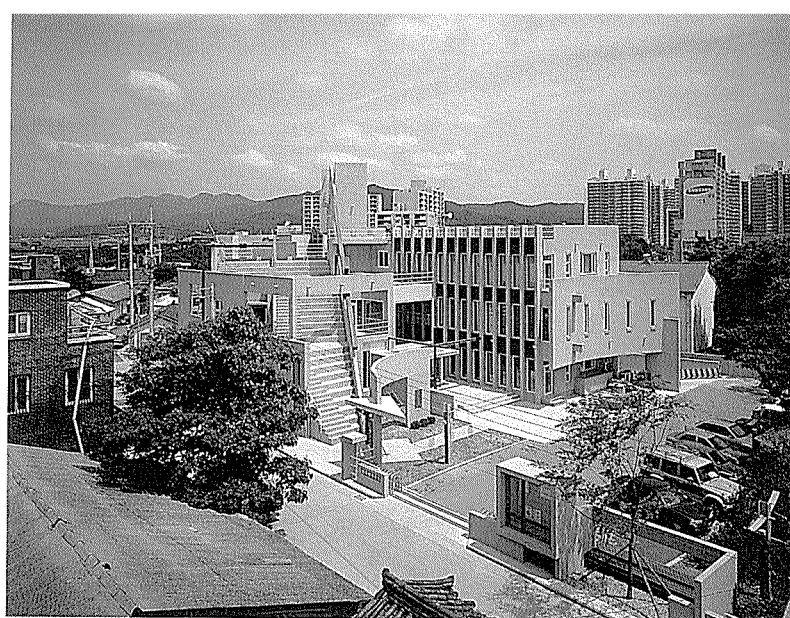
서라벌 교회



The last time I saw architect Son Myung-Moon in Kyungju was almost 10 years ago. Observing his architectural practices in his hometown, after the educating period in Seoul, one cannot resist the feeling of a simultaneous hope and anxiety. Hope is in the fact that he exerts himself to the gradual development of small city's urban conditions, often neglected by competent architects; Anxiety stems from his isolated position, disconnected from architectural stimuli which could induce dogmatic or slothful attitude. This criticism may well be read as an encouragement and advice to the architect, through his recent work, the Seorabul Church. The number of works he has produced is not a small one: a street in Kyungju may be nicknamed 'Street of Son Myung-Moon', since his work can be seen quite frequently. These buildings, which achieved a certain level of architectural value, are his expressions from and within the City of Kyungju. Improving its urban environment, they are an object of joy to both the architect and the citizens.

But an architect's vision of architecture, as soon as it begins to be content with itself and thus become rigid, tends to degrade into regressive, insipid and endless repetitions. Life of an architect is doomed, if you put it that way, to one of ceaseless struggle to top oneself, what he/she has previously done. The influence a creative architect can have on a regional city is beyond the usual expectation. One can find proof of such in the various buildings of Kyungju that are built in Son's style but by other hands. But the cityscape of such copied works is not a pleasant one: formal elements, space and color stand out of context from the city, and contaminate the urban environment even more than the "normal" architecture, i.e. those uninfluenced by Son's works. It is quite ironic that Son has no other choice than to be responsible to these negative consequences. But why should he? In a city of rather uncultivated architectural taste, he has chosen a strategy to present shocking forms, unexpected spaces and expressionistic colors, stimulating the eyes of the citizens with an ultimate end to modify their aesthetical minds. It can be said that these have enjoyed a strategic success. By providing something more than the demands and expectations of the client, Son has become well known among the city's people, not to mention those engaged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both regional and across the nation.

But these so-called success does not necessarily secure his accomplishment as a true architect. It isn't even a safe proof of his willing and affectionate contribution to the architecture of his home town. Clients now have the predilection for "unusual" buildings, and ask Son only of those that stand out among others. In this social mechanism of economic repetition, isn't Son losing edge in his pursuit of meaningful architecture? A few hundred meters from the Seorabul Church stands an office building also designed by Son. Through the process of his previous work, he is well



현곡면사무소

acquainted with the conditions of the site, it's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Though the natural setting is beautiful, it is currently abandoned, maintaining a strange position between rural and urban atmosphere. He is quite sure what to do with it: Looking out to the park across the river, it would become a path of nature, providing an ideal space for pedestrian's meditation.

Seorabul Church is one quite different from others. The norm of this building type, especially in the regional areas, is one of Basilican plan, with a cross over a pointed tower. The architect here presents the city with a new type of church. It is also of a form with religious connotations, through the abstraction of the Ark or sacred crown. With modernized volume and functions, it inherits a traditional value, one that is open up to the sky.

The main border of the site with the road, now busy with speeding vehicles, is dealt with a free-standing wall, which has an opening to the path approaching the church. This road naturally extends itself to the court of the church. But the problem starts then. The extreme height of the wall secludes one completely from the outside, and leave a choice only to go into the church. The second and third floors are linked continuously through a stairway, which is connected to an outdoor terrace where you can finally have a view out to the city. The visual and physical circulation systems of the church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Where movement continues, the vista disappears: As a vision pleases the eye, corporeal circulation ceases. A desirable cityscape is not provided by the mere gesture of looking.

To become a church rooted in the communal life, it is required to be both open and highly approachable. Thoughtful architects has strived to achieve this ideal aspect of a church, but problems in management, such as preventing it from becoming a refuge to troubled youths, has not been met with satisfactory solutions. In the case of this church, as in almost every other instances, reality has prevailed over ideal: It ended up with a stronger concern for an effective management.

The architect comprehends the architectural program of a church in dichotomic terms of 'main space vs.

service space', or 'the holy vs. the secularized'. The former, usually the main chapel space, is secured by a closed structure, whereas the latter such as the lobby terraces are exposed and open. Sacred spaces are finished with hard bricks, when lobbies remain light and open by use of drivit-covered structural frames. A system of contrasting aspects in terms of material, structure and form, such as closedness vs. openness, color vs. the uncolored and stereotomic vs. tectonic, pervades the overall space with a tilt of 30 degrees. The concept up to this point is reasonable and original.

His intention of using dual systems through out, however, is not without weaknesses. First of all, a clear distinction and consistency among the two system are absent. Formal proportion of the skeleton frame, finished with drivit, is also not properly thought out. The over exposure of cantilever beams overshadows its principle as an element consisting the frame of the building. Since the two systems lack strong distinction and arrangement, the intermediate spaces between them also display ambiguous aspects. As the different systems collide directly with each other, instances of disharmony appear through absence of buffering zones: An example that comes to mind is the skeleton frame hovering above the room entering the main chapel, which reduces the spatial characteristic of the lobby and blocks the view toward the outside city. Comprehending the lobby as a third system might have achieved better results. What Son has set as an architectural objective to this church is thoroughly right and meaningful, and evidence of his efforts to achieve such goals can be seen in many instances.



현곡면사무소

The introduction of natural light into the educational facility and parking spaces in the basement floor vitalizes its use, while the inner court delivers an urban atmosphere. The arrangement of light in the main chapel curiously reminds one of Antoine Predock, which is also true of the outdoor service space on the roof. The steel structures symbolically stand for the religious as well as the worldly. These examples are truly successful attempts in themselves, but this does not act to overcome its overall vagueness. This result does not seem to be one of intention: It is rather an effect of discord, an outcome of each fragment's highly anxious expressiveness. Seorabul Church can be viewed as one in a series of his recent works that include House of Gampo and the Office of Hyungok-myun. These three works have different functions and site situations, thus share no basic architectural proposition. But in terms of applied material, execution of details and symbolical forms, they show a discreet connection. House of Gampo is a commercial facility for recreation, its natural surrounding and functional program seeking a romantic, even festive quality. On the other hand, the Office of Hyungok-myun is a public service facility for the regional residents. Hence it shares Seorabul Church's aim for openness and approachability, and have answered this demand notwithstanding its radical formal features. It is in this respect that that work can be valuable as a presentation of an alternative style in government administration buildings. This, however, is not the case with Seorabul Church. First, unlike others, it has a religious program, and is located within the city.

Since it is his most recent work to date, completed after the experiences of other works, we cannot but expect something more from it than the preceding ones. The result was rather discouraging: It had too much elements repeated from the past works. Too many elemental voices could add up in clamour. To benefit the culture of a city with such long history, one should choose not a various set of chimes but simple tone of a heavy ringing, one such the Emilae Bell of Kyungju Museum could render. The writings on the Bell could be telling:

Its form stands tall as a mountain, its ringing sounds like that of a dragon, emitting as high as the end of the world, and as deep as the core of the earth. Those who see will be in awe, those who listen will be blessed.

The architecture of Son, charged with curiosity and love towards Kyungju, and of course, architecture itself, now faces a challenge against itself to be revitalized. It is now the time to overcome the extravagance of elements and construct a new wholeness within a modest expression. To achieve this goal, one must have the will to get over the worldly lures and pursue his/her pure and primary concepts throughout the whole designing process. Only through these efforts will Son surpass the boundaries of Kyungju and the region, and become an 'architect' in a true sense of the word.